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마을자원조사

김영진(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1. 마을자원조사의 변화
 2.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 1) 커뮤니티매핑 소개
 - 2) 커뮤니티매핑의 등장과 활용 사례
 3. 마을자원조사 속의 커뮤니티매핑 사례
- 참고문헌.

1. 마을자원조사의 변화

개인이 갖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결핍을 사회와 마을,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을 때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동의 목표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을의 공통의제를 찾는 활동, 마을자원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을자원조사는 마을 안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면서 진행되는데, 과거의 자원조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이 주도하여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자원조사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동작업을 통해 구성원의 공감대와 자기주도성을 확장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특정 이슈나 문제를 결정하여 목표로 삼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의 공동작업을 통해 구성원들이 향후 공동체 활동의 전체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을자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제를 발굴하느냐가 아니라,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이 마을의 의제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공통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낮아지고, 마을 활동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아닌 구

성원 각각의 개인적 기호가 형성되게 된다.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공감도와 활동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추후 활동에 대한 보람과 만족이 나타나는 만큼 마을자원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동의제를 어떻게 함께 발굴할 것인가는 마을활동가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최근 마을자원조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에 대해 소개하며, 마을 안에서의 공동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함께 활동하였는지 알아보면 좋겠다.

2.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1) 커뮤니티매핑 소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은 커뮤니티와 매핑의 합성어이다. 커뮤니티(communitiy)는 공간적 지역적 단위의 사회 조직체 혹은 공통적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을 가리키며 매핑(mapping)은 지리적 요소를 가진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¹⁾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커뮤니티매핑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제나 지역의 이슈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매핑은 마을자원조사 영역에서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공동작업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커뮤니티매핑은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동의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발굴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대화를 가능하게하고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지역 데이터로 일상생활에 활용되며,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지자체에 건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직접 느끼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제들을 공동체가 함께 데이터로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다.

1) 유창복,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매핑 시범사업 참여마을 사례집”,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p.6

<그림1> 커뮤니티매핑 과정²⁾



특히나 커뮤니티매핑의 과정 및 결과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되어지며 참여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지자체나 커뮤니티 자체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지역의 현황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구성원간의 소통 및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공동체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조사하며 지도로 시각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커뮤니티매핑은 마을자원 조사의 효율성 및 공감대 형성의 측면을 넘어서 집단지성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

2) 김영진. “커뮤니티매핑과 마을자원조사”. 대전공유지도. 2014. 16p

<표1> 커뮤니티매핑의 7가지 기대효과³⁾

종류	기대효과
교육	지역주민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의 시각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익힘과 동시에 자신이 해결의 주체임을 깨닫게 됨.
참여	자연스러운 참여과정에서 배움이 극대화되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활발해짐. 공동체 형성의 초기 구심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활동에 기여.
역량강화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의견과 시각을 담은 정보를 전달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 주체자로서의 역량 강화.
효과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이 가진 문제와 이슈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알릴 수 있음. 또한 문제와 이슈의 패턴이 시각화되어 좀더 효과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접근할 수 있게 됨.
효율	워크숍 과정에서 참여자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평등	보다 많은 이들에게 평등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함. 특히 소외계층에게 커뮤니티매핑을 제공하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더 평등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음.
즐거움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됨.

2) 커뮤니티매핑의 등장과 활용 사례

커뮤니티매핑은 한국의 임완수(커뮤니티매핑센터장) 박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활용한 후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재난대책 활동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더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활동이다.

3) 유창복,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매핑 시범사업 참여마을 사례집”,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p.7

커뮤니티매핑의 첫 시작은 일상에서의 불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임완수 박사는 가족과 함께 뉴욕을 여행을 하던 중 공중화장실을 찾다가 고생한 경험 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임완수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화장실 정보를 웹을 통해 한 곳으로 모아 지도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실제로 뉴욕의 화장실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공통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합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가 모이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정보가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커뮤니티매핑은 이후 임완수 박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 활동은 주로 어린이 안전지도, 장애인 접근성 지도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며 서서히 알려지던 커뮤니티매핑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화제가 되며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2년 미국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 사람들은 난로를 피우기 위해 ‘가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평소 주유소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를 보고 가스를 찾으러 간 사람들은 허리케인에 의해 파괴되었거나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거나 가스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 또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다가 중간에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서 위험에 처한 사례도 속출하였다. 이에 임완수 박사는 사람들이 각자 알고 있는 주요소의 최신 정보를 올리면 허리케인에 의해 피해를 받아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라인을 통해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였다.

임완수 박사와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가 있는 곳, 가스는 있지만 전기가 없는 곳, 가스가 전부 떨어진 곳 등 주유소 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은 정보들이 하나하나 모여 주유소 지도가 만들어져 활용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주유소 지도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백악관의 재난대책본부도 이 지도의 효과를 인정하여 가스와 관련된 재난 대책 계획은 주유소 지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주유소 지도를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커뮤니티매핑은 임완수 박사가 한국에 커뮤니티매핑 센터를 만들면서 마을만들기와 일상생활의 자원조사에 보다 밀접하게 활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메르스(Mers) 지도와 같은 재난과 관련된 영역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3. 마을자원조사 속의 커뮤니티매핑 사례

앞서 소개한 커뮤니티매핑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정보와 지리정보 시스템의 객관적인 정보를 합쳐서 정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면, 마을자원조사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발굴된 정보를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마을에서의 자원조사는 재난대책이나 정보제공형 커뮤니티매핑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활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최근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이슈를 중심으로 마을자원조사 속에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사례 중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회의와 커뮤니티매핑을 결합한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만들기는 월평1동에서 젊은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돌봄과 성장을 돕는 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활동한 사례이다.

상가형성지역이 넓고, 교통 문제가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생활 안전 불안도가 높던 월평1동 주민들이 마을의 안전문제라는 공통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간 이번 활동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동을 진행하기까지 마을주민들이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도한 활동이었다.

월평1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체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마을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회의의 구성과 소주제들을 결정하였다. 또한 월평1동의 마을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마을회의를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

는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마을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커뮤니티매핑을 하며 마을의 위험요소를 지도로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회의와 커뮤니티매핑으로 발굴된 의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차 마을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발굴에서부터 마을조사, 문제해결까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자원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표2>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만들기 추진 내용⁴⁾

구 분	세 부 내 용
기획단 회의 (6.25~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기획단 회의 진행.
사전 설문조사 및 인원 모집 (8.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주민들의 전체적인 안전의식 조사 및 마을회의 참여 인원 모집 진행
1차 마을회의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1동의 위험요소 찾기를 주제로 진행된 마을회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마을의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 참여하여 월평1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
안전커뮤니티 매핑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설문조사와 1차 마을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마을의 위험요소를 직접 마을 안에서 찾아다니며 지도로 구체화함.
2차 마을회의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활동에서 나온 마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마을회의 진행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자체에 제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대안 마련

4) 김영진.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종합보고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5. p.3

<그림2>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활동 사진5)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크게 3가지(교통 문제, 주거지역 문제, 학교 및 상가와 공원 문제) 영역에서 구체적인 공동의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중 지자체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자치단체장과의 면담과 담당부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으로 대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서로 합의하고, 배려해야하는 부분은 향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월평1동의 사례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환경 개선 및 정책 제언 등 주민들의 활동이 마을회의와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활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서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음에도 마을의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또한 의제를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면서 마을주민들이 해당 의제(마을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것도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문제해결 측면의 의제발굴을 넘어서, 서로 공유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공익적인 정보를 커뮤니티매핑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부천의 한 고등학교는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여 지리 수업 시간에 지도 위의 집단지성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마을 안의 CCTV나 편의시설 지도를 만드는 것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며 마을주민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30명의 학생들이 일주일 간,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장소를 공유하여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데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하였다.

이렇듯 커뮤니티매핑이 결합한 마을자원조사는 특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을자원조사가 이웃과의 소통을 돕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또 다른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마을자원조사에 커뮤니티매핑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방법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봐야하는 이유이다. [끝]

참 고 문 헌

- 김영진. (2014). “커뮤니티매핑과 마을자원조사”. 대전공유지도
- 김영진. (2015). “월평1동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종합보고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유창복, (2013).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매핑 시범사업 참여마을 사례집”,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임완수, (2013) “커뮤니티가 그리는 새로운 지도”. IMPACT BUSINESS REVIEW.
- 임완수. (2014). “서울! 이야기하다-세상을 바꾸는 커뮤니티 매핑” 서울연구원
- 대전공유지도 <http://www.daejeonsharingmap.com/>
- 커뮤니티매핑센터 <http://www.cmckorea.org/>